

존 웨슬리의 영성수련과 현대 영성교육적 의미

- 제정된 은총 수단(Means Ordained of Grace)을 중심으로 -

김 정 준

서울기독교대학교

〈요 약〉

본고의 연구 목적은 개신교회 주요 교파들 중의 하나인 감리교회의 창설자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의 영성수련 방법인 다섯 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means ordained of grace)이 현대 영성교육에 제공하는 의미를 밝혀 보려는데 있다. 웨슬리가 추구했던 영성생활의 주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의 추구로서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영성수련 방법으로 세 가지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일반적 은총의 수단’, ‘제정된 은총의 수단’, ‘상황적 은총의 수단’-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그 중에서 ‘제정된 은총의 수단’ 안의 5가지, 곧 기도, 성경탐구, 주의 만찬, 금식, 크리스찬 컨퍼런스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웨슬리가 제시한 5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이 현대 기독교영성교육에 대하여 주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1) 성서의 원리: 영성생활의 기초, (2) 경험의 원리: 영성생활의 확신과 자발성, (3) 실천성의 원리: 영성생활의 사회성, (4) 통전성의 원리: 영성의 균형, (5) 공동체성의 원리: 영성발달과 성장의 장, (6) 다양성의 원리: 영성계발 방법론 등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웨슬리의 5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이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제공하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생활의 텍스트와 근거로서 경전(성서)의 권위의 확립이다. 둘째, 인격의 변화와 사회문화 변혁의 원동력으로서, 개인적 종교 경험의 중요성이다. 셋째, 종교와 사회의 의사소통과 문화변혁을 위한 영성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담보이다.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은 종교의 자기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의 토대 위에서, 한 인간의 종교적 깨달음을 통한 인격의 변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혁의 중재자(medium)가 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핵심 주제어 : 존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 제정된 은총의 수단, 성서의 권위, 종교적 경험, 영성교육의 사회적 공공성

I. 서론

최근에 영성에 대한 관심은 종교 뿐만 아니라 철학, 심리학, 의학 그리고 종교와 대립적으로 보이는 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점증하고 있다.¹⁾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관점에 따라 영성이 무엇이나 하는 의미와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분광하고 있다. 예컨대 기독교의 영성과 불교의 영성, 그리고 의학에서의 영성과 과학에서의 영성은 영성의 개념과 기본 전제, 그리고 실천양식이 다르기에, 그에 따르는 연구와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선결 과제는 영성의 의미와 개념, 그리고 정의와 접근방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어의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령한 성품’, ‘종교적 특성’ 혹은 ‘영적인 기질’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영성이란 한 인간이 채택한 이상적인 사상과 정신 그리고 가치를 덕으로 하여, 자신의 삶 속에 일치시키며 구체화하는 삶의 총체적 양식을 의미한다.²⁾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³⁾ 영성이라 함은 성서에 기초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과 내면의 삶, 그리고 사회문화 안에서의 실천되는 총체적 삶의 양식을 함의한다.⁴⁾ 즉, 기독교 영성은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세상(사회문화)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서의 진리를 구현하려는 삶의 태도와 양식을 반영한다. 영성생활과 관련하여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신앙의 의미를 그 시대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구체화시키며, 양육하며, 발전시킴으로 기독교적 삶의 스타일을 형성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 사회가 점진적으로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한편 한국 기독교회는 오래 전부터 영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영성훈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한국 기독교회의 전통적 영성훈련의 형태는 “영성”에 관한 제한된 해석과

1) Maria Harris and Gabriel Moran, *Reshaping Religious Education: Conversation on Contemporary Practice* (Louisville: Wester John Knox Press, 1998), p. 105; Bradly C. Hanson, “Introduction,” ed. by Bradly C. Hanson, *Modern Christian Spirituality*, (Atlanta: Scholars Press, 1990), p. 1; 손원영, 『영성과 교육』(서울: 한들출판사, 2004), 16쪽.

2) Alister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영성배이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5쪽; 김정준, 『융 심리학과 영성교육』(서울: 이머징북스, 2008), 61쪽.

3)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독교회’는 한국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등을 의미한다.

4) Alister McGrath, 앞의 책, 26쪽; 김정준, 앞의 책, 112-114쪽; 오성준, 『영성과 묵회』(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77-78쪽.

5) 임영택, 『영성교육의 모형과 지도력』, 『기독교교육정보』제13집(군포: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6), 123쪽.

지극히 편협된 이해 위에 수립되어 수행되어 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첫째, 기도란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도만을 통하여 영적 성숙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다. 둘째, 영성이란 본질상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분리시켜 그 총체성을 규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시각의 영성 이해와 훈련의 태도다. 셋째, 영성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할 때 감정이나 이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으로 통전적 차원의 영성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종교교육의 바람직한 영성계발을 위한 통찰을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에게서 발견하고자 한다. 웨슬리의 영성은 성서에 기초하여 개인의 내면적 성화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문화를 변혁시키는 차원에까지 그 외연을 확대한 통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역사 참여, 즉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영성의 유형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⁷⁾ 성서와 체험을 중시하는 개신교 영성운동을 전개하여 18세기 영국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변혁시켰다고 평가받는⁸⁾ 웨슬리의 영성과 수련방법, 특히 그가 제시했던 5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을 살펴보면서 웨슬리 영성교육의 현대적 의미를 밝혀 보려고 한다.

II. 웨슬리의 영성과 ‘제정된 은총의 수단’

웨슬리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의 사회문화와 정신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웨슬리의 신학사상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강희천,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03-205쪽.

7) Geoffrey Waynwright, “Types of Spirituality,” *The Study of Spirituality*, ed. by Cheslyn Jones, Geoffrey Waynwright, Edward Yarnold, SJ.,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 592-605.

8) 프랑스 역사가 할레비(Elie Halevy)는 “메소디스트들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일어날 수 있었던 폭력적 혁명에서 영국을 구원했다.”고 말한 영국의 역사가 W. E. H. Lecky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The Birth of Methodism* (1913)과 *England in 1815* (1924)라는 두 개의 논문을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나라들보다도 19세기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확실하게 혁명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을 강하게 지탱해준 것은 영국의 국가 제도나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었다. 그 힘은 영국의 비국교도에게서 발견된다. 곧 감리교 운동(Methodism)은 과격급진주의(Jacobinism)의 해독제였다.” Elie Halevy, *England in 1815: The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in the Nineteenth Century*, trans by E.I. Watkin and A. Barker (1912) in <http://en.wikipedia.org> 2008.10.12; 박용규, 『근대교회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280쪽;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서울: kmc, 2006), 50-53쪽.

1. 웨슬리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

웨슬리가 살았던 18세기의 영국사회는 정신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대변혁과 전환의 시대로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3R시대”(Three R's Age)라는 말로 요약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첫째,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이다. 이성의 시대라 함은 17, 18세기는 영국은 물론이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시대적 정신의 흐름이 이성(reason)을 중심으로 하는 합리주의 기풍이 확산되던 계몽주의 시대(The Age of Enlightenment)였음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허버트(Edward Lord Herbert Cherbury, 1583-1648)에 의하여 전파된 계몽주의 사상은 이신론(理神論, Deism)이라는 신학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합리주의 운동은 체험중심의 경건주의와 서로 깊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웨슬리 역시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이성의 역할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18세기의 이신론적 개념이나, 스콜라주의적 개념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한 이성, 성령의 인도 아래 복음에 봉사하는 이성의 개념이었다.⁹⁾

둘째, 혁명의 시대(The Age of Revolution)이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근로 환경의 악화와 노동조합 운동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감리교회는 속회 지도자들과 지역 설교가들이 노동조합 운동에도 가담하게 되었다.¹⁰⁾

셋째, 종교적 부흥의 시대(The Age of Revival)이다.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Protestant Orthodoxy)가 스콜라주의적, 교리적 경직성을 띠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독일의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와 그 2인자 프랑케(August H. Franke, 1663-1727) 등에 의하여 금욕주의적, 체험적 영성을 추구하는 경건주의 운동(Pietism)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의 후예인 진젠도르프(Nikolas L. Zinzendorf, 1700-1760)의 모라비안 운동(Moravianism)은 웨슬리의 복음주의적이고, 체험적인 경건주의 영성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Street)의 모라비안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의 말씀 -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 을 듣는 중에 신앙을 확신하는 종교적 체험¹¹⁾은 감리교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8-19쪽.

10) 위의 글, 20-25쪽.

11) John Wesley, *The Journal of John Wesley*, ed. by Percy Livingstone Parker (Chicago: Moody Press, 1974), p.64.

2. 웨슬리 영성신학의 특징

웨슬리의 영성(Methodism)은 다양한 색상을 한 코트와 같다. 비록 웨슬리 영성의 뿌리와 줄기가 청교도(Puritan)와 영국교회(Anglican)에 있지만, 루터교회, 모라비안, 로마 가톨릭, 그리고 동방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의 다양한 영성의 영향력은 감리교도들의 영성훈련의 다양성 속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감리교도들은 성장하였다.¹²⁾ 본고에서는 영성계발을 위한 교육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웨슬리 신학사상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 영성생활의 확고한 기초는 성서(the Scripture)였다. 그는 자신에 대하여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기를 원한다고 언명한 바 있으며, 영성생활의 목적도 성서에 기초하여 ‘온전한 구원’과 ‘성서의 교훈과 그 실천’으로 규정한다.¹³⁾

둘째, 웨슬리가 추구했던 영성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christian perfection)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인간의 영적 변화는 영성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삶의 ‘온전한 거룩함’(entire sanctification)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완전성이란, 인간의 죄성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로 집약하여 표현하였다.¹⁴⁾ 그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order of salvation)을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 → 회개 → 칭의 → 거듭남 → 성화 → 완전성화 → 영화’ 등으로 제시하면서 점진적 과정으로서 ‘성화를 이루는 삶’(process of sanctification)을 제시하였다.

셋째, 웨슬리는 영성생활을 위한 수련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인간 내면의 변화와 영적 성장과 성숙의 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성 훈련’(spiritual exercise)과 ‘사

12) Gordon S. Wakefield, *Methodist Spirituality*, (London: Epworth Press, 1999), p. xi.

13) “이것은 내가 1725년부터 특히 내가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어 성서 밖에는 어떤 책에도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한 1730년대부터 내가 계속 추구하던 바로 그 점이라는 사실을 찾아보기 수월하지 않은가?” John Wesley, 『제10장. 그리스도인의 완전』 송홍국·이계준·김광식 공역 『존 웨슬리 총서9: 논문집』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127쪽; “나는 1729년에 성서를 진리의 유일한 표준과 순수한 종교의 유일한 귀감으로 삼고 탐독할 뿐 만 아니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걷는 것’이 절대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의 글, 119쪽.

14)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웨슬리 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인물과 요소들로는 토마스 아 켐피스(Tomas a kempis, 1379 / 80-1471)의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n of Christ*),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1613-1667)의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Rules and Exercise for Holy living and Holy Dying*), 윌리엄 로우(William Law, 1686-1761)의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과 『경건한 삶으로 중대한 부르심』(*Serious Call to a Pious Life*) 등을 읽고서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다.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서울: kmc, 2006), 51-62쪽; 이집트의 수도자 마카리우스(St. Macarius)와 동방교회의 니짜의 그레고리(Gregory of Nyssa)의 신화사상(神化思想; Gk. *theosis*; deification)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정, 『성화의 길: 오늘을 위한 웨슬리의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3-43쪽.

회적 실천'(works of good and works of mercy) 등의 구체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영성 훈련의 지침으로 '중생의 체험'(experience of rebirth)과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하여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에 참여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 다음으로 개인적 성화의 결과로서 사회적 성화는 열매와 같이 선행의 실천(works of good)과 자비의 실천(works of mercy)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은 산업화, 도시화를 촉진시켜 부의 재편과 함께 사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여성, 어린이 등은 그 지위와 삶의 질이 보잘 것이 없었다. 웨슬리는 이러한 인간소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복음의 빛 아래 신앙적 소그룹 운동인 속회와 함께 사회사업(고아원), 교육사업(학교) 등을 통하여 노동운동, 여성의 지위 향상, 어린이의 교육과 돌봄 등에 관련된 사업, 즉 사회적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¹⁵⁾

넷째, 영성생활은 공동체성(community)을 지향하였다. 웨슬리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 여정에 있어서 고립적이고, 개인적인 형태의 영성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서의 가르침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 그리하여 그는 감리교도들 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적 교육의 장(場)으로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를 운영하였다. 이 소그룹 공동체는 루터파 경건주의 후예들인 모라비안 소그룹 공동체(collegia pietas)와 같은 성격의 공동체인 연합 신도회(united society), 조(band), 속회(class)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발전된 크리스찬 컨퍼런스(christian conference: 철야 기도회, 애찬회, 계약갱신예배, 설교예배 등) 등의 형태에 반영되어 있다.

웨슬리는 '크리스찬의 완전'이라는 논문에서 완전성화의 사상이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1613-1667),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á Kempis, ca. 1380-1471), 윌리엄 로우(William Law, 1686-1761)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하면서도, 결코 개인적인 신앙의 신비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성화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성서말씀에 근거한 완전을 강조한다.¹⁷⁾(마5:48; 고후7:1; 빌3:12; 살전5:23; 히6:1-2; 12:2,23; 요일4:18) 그리하여 인간의 본성과 성격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를 열망하였다. 웨슬리가 그리는 바람직한 기독교 영성생활은 공동체 안에서(in community) 깨닫고 체험되며, 공동체를 통하여(through community) 성장하며, 공동체와 함께(with community) 은총을 나누는 삶이라는 점을 가르쳤다.¹⁸⁾

15) Alfred H. Body, *John Wesley and Education*, 장종철·주신자 역 『존 웨슬리와 교육』(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5), 11-13, 67-78쪽.

16) John Wesley, "Sermon 24.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Four,"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 ed. by Thomas Jackson, (Peabody: Henderickson Publishers, 1986), p.296.

17) 김흥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서울: 한들출판사, 2008), 180쪽.

18) John Wesley, "Sermon 24. Upo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Discourse Four", ed. by Thomas Jackson,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V. (Peabody: Henderickson Publishers, 1986), p.296.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웨슬리는 성서에서 제시하는 ‘영혼의 구원’(벤전1:9),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갈4:19),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이루는 일’(엡4:13) 등이 기독교인의 이상이었으며, 영성수련의 목표였다. 그는 종교개혁적 전통에 기초하면서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의 영성가들의 성화사상을 종합하여 개신교의 성화사상(thought of sanctification)으로 발전시켰다. 웨슬리 영성신학의 핵심인 성화사상은 16세기 이후 기독교 영성생활의 흐름을 개인적 성화와 함께 사회적 성화의 차원까지 통합하여 확장하였다. 웨슬리의 영성은 전통적인 영성과 개신교 영성의 통합, 개인의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통합시켰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강조된 영성교육으로 사회문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갱신시킨 변혁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3.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

웨슬리는 영성생활을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인격과 삶을 지향하는 거룩한 삶을 그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을 목표로 하는 영성훈련을 추구하였다. 그는 영적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수련 방법들을 제시하였으며, 그의 동역자들과 교도들에게 가르쳤다. 이러한 방법들을 ‘은총의 수단’(means of grace)이라고 불렀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응답하는 신앙실천의 수단 혹은 방법들을 말한다. 그가 제시한 ‘은총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일반적인 은총의 수단’(general means of grace), ‘제정된 은총의 수단’(instituted means of grace), ‘상황적 은총의 수단’(prudential means of grac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일반적 은총의 수단. 일반적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성도가 준수해야 할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keeping all the commandments), ‘자기를 부인하는 것’(denying ourselves),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taking up our cross daily) 등이다.

둘째, ‘제정된 은총의 수단’. 제정된 은총의 수단은 성경과 교회사의 전통에서 변할 수 없는 제도적 성격의 은총의 수단을 일컫는다. 그 내용은 기도(prayer), 성경탐구(searching the scriptures),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금식(fasting), 크리스찬 컨퍼런스(christian conference) 등이다.

셋째, 상황적 은총의 수단. 상황적 은총의 수단은 찬양(hymn), 선행의 실천(works of good), 악행의 금지(doing no harm), 병든 사람과 수감자를 방문하는 것(visiting the sick and the prisoners),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give money to the poor), 영적일기 쓰기(writing a spiritual diary / journaling),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reading christian

19)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61-62쪽.

classics) 등이다.

Ⅲ. 제정된 은총의 수단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웨슬리는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인격과 삶을 이루어 가도록 다양한 영성훈련의 실제적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인 ‘은총의 수단’²⁰⁾(The means of grace)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총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usual channels of his grace)으로 크게 세 가지, 곧 기도(prayer), 성서탐구(searching the Scriptures) 그리고 성만찬(receiving the Lord's Supper) 등을 제정하셨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means of ordained of God)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도 직접 기도, 성서탐구, 주의 만찬 등의 세 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의 동료 지도자들과 신도들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는 ‘제정된 은총의 수단’으로 세 가지, 곧 기도, 성서탐구, 주의 만찬 등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후에 두 가지, 금식(fasting)과 크리스찬 컨퍼런스(christian conference)를 더하여 ‘5대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²¹⁾ 웨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제정된 은총의 수단’은 대개 다섯 가지로, 기도, 성경탐구, 주의 만찬, 금식, 크리스찬 컨퍼런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도(Prayer)

웨슬리는 ‘제정된 은총의 수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기도였으며, 영성생활의 핵심적 활동이었다.²²⁾ 그가 가르쳤던 기도는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와 공동체적인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로서, 그 형태는 개인기도, 가족기도, 공동기도 등을 포함한다.²³⁾ 기도의

20) John Wesley, 「12. 은혜의 수단」, 마경일·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1: 표준설교집(상)』(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186-189쪽. 본고에서 사용되는 ‘은총’(grace)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의미로서 ‘은혜’라는 용어와 같은 뜻이다.

21) John Wesley, 「54.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대하여」, 박봉배·조종남 공역, 『존 웨슬리 총서2: 표준설교집(하)』(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452쪽.

22) “자 시작하라!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개인적인 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정하라...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지 싫어 하든지, 매일 읽고 기도하라.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 다른 길은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평생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John Wesley, *The Letters of the Rev. John Wesley Vol. 4*, ed by John Telford, (London: Epworth, 1960), p.103.

23) John Wesley, 「54.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에 대하여」, 『존 웨슬리 총서2: 표준설교집(하)』, 박봉배·조종남 공역(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p.452.;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을 초기 설교인 「12. 은혜

방식은 기록된 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기도(formal prayer / liturgical prayer),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드리는 공동기도문에 의한 공동기도(collects),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흥적으로 드리는 즉흥기도(informal-extemporary prayer), 혹은 통성기도(active prayer)와 화살기도²⁴⁾(ejaculatory prayer), 박스터(Richard Baxter)와 헐(Joseph Hall)의 명상 기도법을 따라서 성서를 읽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명상하는 명상기도(meditative prayer), 하나님과 친교와 대화를 갖는 관상기도(contemplative prayer) 등을 가르쳤다.²⁵⁾ 웨슬리가 가르친 기도는 역사적인 전통 안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와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 기도는 신자의 생활 방식이며, 거룩한 습관으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²⁶⁾

영성교육의 측면에서 웨슬리가 가르쳤던 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성을 충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둘째로 기도는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보다는 성화를 이루기 위한 영성계발의 수단이었다. 셋째로 기도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가족, 소그룹 모임과 교회 공동체 등을 통하여 서로 성찰하고, 격려하는 공동체적 성격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2. 성서 탐구(Searching the Scriptures)

웨슬리는 1730년부터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성서 이외에는 다른 책을 연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1세기에서 5세기에 이르는 동·서방 교부들의 신학이나 어거스틴, 루터, 칼빈 그리고 윌리엄 로우, 제레미 테일러, 토마스 아 Kempis 등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 그들의 사상과 영성의 전통 등에 대하여 잘 알았다. 하지

의 수단」(1746)에서는 세 가지-기도, 성경탐구, 성만찬 등-를 언급하였지만, 이후의 설교인 「54. 우리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에 대하여」(1785)라는 설교에서는 “선한 일과 경건한 일, 기도, 금식, 성서 탐구, 성만찬, 교제(conversation be with the children of God), 자기 부인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등으로 확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웨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웨슬리의 은총의 수단을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적 은총의 수단’, ‘제정된 특별한 은총의 수단’, ‘상황적 은총의 수단’ 등으로 구분한다. Henry Knight King III,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 John Wesley and Means of Grace* (Lanham, Md, Scarecrow Press, 1992), pp. 122-123; 반면에 하퍼(Steve Harper)는 ‘제도적 은총의 수단’과 ‘비제도적 은총의 수단’ 두 가지로 나누고, 제도적 은총의 수단으로 다섯 가지 즉, 기도, 성경, 성만찬, 금식, 집회 등으로 설명한다. Steve Harper,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 (Nashville: The Upper Room, 1983). 참조.

24) 화살기도(ejaculations)는 ‘외침의 기도’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예컨대, “오, 나의 하나님이지어!”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여, 내 마음을 높이 들리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등등 큰소리로 외마디 기도를 외치는 것이다.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17쪽.

25)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249-251쪽;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서울: kmc, 2006), 63-64쪽; Steve Harper,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 pp.18-26.

26) Thomas Jackson, “The Character of Methodist”, ed. by Thomas Jackson,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A.M., vol.8*, (London: John Mason, 1831), p.339.

만 역사적 전통이나 신학사상 보다는 성서를 가장 원천적인 자료(prominent source)로 삼았다. 즉, 웨슬리의 영성생활과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준과 자료는 성서였다.²⁷⁾

웨슬리는 감리교도들의 영성생활의 핵심적 소그룹이었던 속회(class)를 통하여 성서 연구를 권장하였다. 속회에서의 성서 연구의 목적은 성화에 있었으며,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반성하고 나누는 간증을 통해 서로 권면하고, 충고하고, 위로를 받음으로 더욱 성화된 삶을 추구하였다.²⁸⁾ 그는 성서탐구를 세분하여 성서를 읽고(reading), 듣고(hearing), 명상(meditating)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²⁹⁾ 아울러 웨슬리의 성서탐구의 태도에 있어서 주목되는 점은, 성서에 기록된 문자보다는 성서가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웨슬리가 보여주는 성서탐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읽기(reading): 웨슬리는 일생동안 삶의 표준이 성서였고, 목회의 표준이 성서였다. 그러므로 그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와 희랍어로 된 신약성서를 매일 몇 시간씩 읽으면서 진지하게 연구하였다. 그래서 성서에 능통한 그는 그가 쓴 편지나 논설에 많은 성서 구절이 인용되었으며, 항상 성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다. 또한 그의 설교의 기초는 성서였고, 성서가 바로 설교의 내용이었다. 그의 설교문들을 보면 성서 인용으로 가득 차 있다.³⁰⁾ 김진두는 웨슬리가 추구한 성서탐구의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³¹⁾: ① 자기성찰을 통해서 개인성화(personal sanctification of heart and life)를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②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더 잘 돕기 위한 목적이 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는 가르친다.”³²⁾ ③ 소공동체 안에서의 성서탐구이다. 초기 메소디스트들은 공동체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을 탐구하면서 서로 수정해 주고, 경험되는 문제의 해답을 함께 구하면서 격려하는 자세를 가졌다. 특별히 신약성서는 초기 메소디스트들이 성화의 삶을 훈련하는 데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

(2) 듣기(hearing): 성경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읽고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도회(society)나 속회(class) 모임에서 말씀의 해석이나 설교를 들음으로 은혜 받는 것을 강조하였다.³³⁾

(3) 명상(meditating): 웨슬리가 제시한 명상의 방법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성

27) John Wesley, 『12. 은혜의 수단』 마경일·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1: 표준설교집(상)』, 191-198쪽.

28)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252쪽.

29) John Wesley, 『12. 은혜의 수단』 마경일·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1: 표준설교집(상)』, 189쪽.

30)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251-252쪽.

31)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21쪽.

32) H. Sugden Edward (edited and annotated), *The Standard Sermons on John Wesley*, vol. I., (London: Epworth Press, 1921), p.32.

33) 김홍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251쪽.

서의 교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는 성서를 명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신비한 일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기 위한 것이다.³⁴⁾ 둘째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과 교훈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의 차원이다.³⁵⁾ 셋째는 밝혀진 말씀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 차원이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을 명상하면서 자기성찰(self-examination)을 위한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다.³⁶⁾ 아울러 영적 일기(journaling)를 쓰기도 하였다.

(4) 성서의 정신에 따라 살기: 웨슬리는 성서의 교훈을 따라 살기 원했다.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문자에 얽매어 지키기 보다는, 그 정신에 따라 살고자 하였다. 예컨대 당시 웨슬리의 설교와 가르침에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타교파의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서의 교훈을 따라 설득하며, 관용적인 사고와 대화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³⁷⁾ 웨슬리는 영국교회에 소속된 자는 계속해서 영국교회에 나갈 것이며, 장로교도, 침례교도 혹은 웨이커 교도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단지 감리교회에 소속하고 싶은 자에게는 미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³⁸⁾

3. 주의 만찬³⁹⁾(The Lord's Supper)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예수께서는 이를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제정하셨다.(마 26:117-29; 막14:12-26; 눅22:7-23; 요13:21-30)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제정된 주의 만찬의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전11:23-26)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주의 만찬을

34) Thomas Jackson (ed.),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A.M., vol. 5*, p. 3;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21쪽 참조.

35) John Wesley, *John Wesley's Explanatory Notes upon the New Testament vol. I.*, (London: 1754, reprinted by Epworth Press, 1921), vIII;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121쪽 참조.

36) John Wesley, “내가 배운 것을 실행하라.” edited and annotated by H. Sugden Edward *The Standard Sermons on John Wesley, vol. I.*, (London: Epworth Press, 1921), p. 32.

37) John Wesley, “To a Roman Catholic, July 18, 1749,” ed. by John Telford, *The Letters of John Wesley vol. 3: March 28, 1749 to January 10, 1758*, (London: Epworth Press, 1931).

38) John Wesley's Sermon “121. Prophets and Priest: Heb. 5:4; W.R. ward, Art. Methodistische Kirchen, 679, 각주3 (Works VII, ed. by Jackson, 276-277; Works IV, ed. by Outler, 78); 한정애, 『웨슬리의 시대적 배경 및 신학사상의 위치』, 협성신학연구소 편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서울: 기독교대한 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43-44쪽 참조.

39)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은 개신교 성례전에서 ‘성만찬’ 혹은 ‘성찬’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웨슬리 신학자 김진두 박사의 견해를 따라 초기 메소디스트들이 “The Lord's Supper”라고 사용한 것을 따라 “주의 만찬”으로 번역하였다.

예배의 중심적 행위로 채용하였다.⁴⁰⁾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으로 은총의 수단이며,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 예배와 영성생활의 중심적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 ‘주의 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⁴¹⁾ 사실 웨슬리는 개신교 전통을 따라서 세례(Baptism)와 주의 만찬(Lord’s Supper), 이 두 가지 성사만 실행하였지만 일곱 가지 성사를 실행하는 가톨릭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였다.⁴²⁾ 특히 웨슬리는 주의 만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 ① 주의 만찬은 선제적 은총, 의인화의 은총, 성결의 은총을 전달하는 수단, ② 주의 만찬은 회심케 하는 의식(converting ordinance)으로 이해하였다.⁴³⁾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은 신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를 체험하는 수단이며, 믿음과 거룩함이 증가되는 영적 체험의 중요한 메카니즘(spiritual mechanism)이었다.

4. 금식(Fast)

웨슬리는 기도와 함께 금식도 제정된 은총의 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기독교 영성 전통에 있어서 ‘자기 부정’(self-denial)은 중요한 주제였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성인들은 영성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의 문제와 함께, 오히려 무엇을 포기하느냐 하는 받음과 드림의 조화를 인식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슬리가 인식한 영성훈련에 있어서 자기부정의 요소는 ‘금식 훈련’ 가운데 잘 표현되어 있다.⁴⁴⁾

웨슬리는 초기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였고, 후기(1738년 이후)에는 금요일만 금식하였다. 금식의 종류는 시간적으로 여러 날, 하루, 반나절 금식이 있었으며, 음식물의 섭취에 따라서 전혀 안 먹는 것, 조금 먹는 것, 최하위의 단계로 즐겨하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 등이 있었다.⁴⁵⁾ 금식의 이유와 목적은 다섯 가지이다: ① 죄로 인한 슬픔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강한 인식, ②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물건들을 남용하거나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생각함, ③ 미식과 감각의 즐거움을 제거함으로 어리석고 유해한 정욕을 금함, ④ 그 밖에 악하고 허영에 찬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함, ⑤ 기도에 큰 유익, 곧 많은 시간을 은밀하게 기도에 힘쓰고자 함 등이다.⁴⁶⁾ 웨슬리는 금식

40) J.G. Davies, “The Lord’s Supper”, ed. by J.G. Davies, *The New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p.340.

41) David Trickett, 『초기 웨슬리운동의 영적 이상과 훈련』, ed. by Louis Dupré and Don Sailors, *Christian Spirituality: Post Reformation and Modern*, 엄성옥·지인성 공역 『기독교 영성(III):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까지』(서울: 은성, 2001), 497쪽.

42)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97쪽.

43) John Wesley, *Journal, July 27, 1740*, 김흥기, 『존 웨슬리의 성화론』, 63쪽. 재인용.

44) Steve Harper,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 p.47.

45) John Wesley, 『22. 산상설교(VII)』, 마경일·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1: 표준설교집(상)』, 352-361쪽.

의 중요한 목적이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심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교의 끝 부분에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금식이 되려면 성서에 근거(행 10:4)하여 이웃의 육과 영을 위한 자선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⁴⁷⁾

5. 크리스찬 컨퍼런스(Christian Conference)

웨슬리는 ‘크리스찬 컨퍼런스’(christian conference)를 ‘제정된 은총의 수단’으로 취급하였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목회자와 신도들 간의 규칙적인 대화와 교제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⁴⁸⁾ 크리스찬 컨퍼런스는 초기 메소디스트들에게 연합과 친교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는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었다.

웨슬리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기때문에, 기독교를 고독한 종교로 바꾸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고독한 종교를 대치하는 가장 좋은 말은 ‘크리스찬의 교제’(christian fellowship)이다. 이것을 ‘크리스찬의 대화’(christian conversation)의 의무에 연결시켰다.⁴⁹⁾ 아울러 웨슬리는 초기 메소디스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대화하는 것을 기독교 영성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한 대화와 참여의 교육적 현장은 소그룹 집회였다.⁵⁰⁾ 크리스찬 컨퍼런스는 연합 신도회(United Society)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소그룹 공동체 즉, 조(band), 속회(class) 그리고 메소디스트 신도회에서 제공되는 모든 공동의 영성훈련 모임(철야 기도회, 애찬회, 계약갱신예배, 설교예배 등)의 참여와 활동은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영적 책임감(accountability)이 형성되는 영적 성장의 현장이었다. 다시말하면 크리스찬 컨퍼런스는 대화와 참여가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영성교육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IV. 웨슬리의 제정된 은총의 수단과 영성교육적 의미

이상에서 논의한 웨슬리의 ‘제정된 은총의 수단’의 신학적 의미를 교육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면서, 영성계발을 위한 가능성과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6) 같은 글.

47) 위의 글, 368쪽.

48) Gordon S. Wakefield, 앞의 글, p.22.

49) “당신은 대화를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고도 어려운 일인지 잘 인식하고 있습니까?” Thomas Jackson (ed.), *The Works of The Rev. John Wesley, A.M.*, vol. 8., pp. 322-324.

50) David Trickett, 앞의 글, 491쪽.

1. 성서의 원리: 영성생활의 기초

기독교에 있어서 영성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기초는 성서다.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와 행위 하심에 대한 증언이다. 성서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규범이 될 수 없다. 기독교교육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성서가 그 핵심적 근원이 되어야만 한다.⁵¹⁾

웨슬리는 무엇보다 성서를 신앙의 유일한 권위와 표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토마스 아 켐피스가 말하였던 바, 성서의 문자에 얽매이기 보다는 성서가 가르치는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⁵²⁾ 다시 말하면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는 종교 텍스트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동시에 텍스트가 가르치는 교훈을 문자에 얽매인 율법주의적 준수보다는, 성서가 가르치는 정신에 따라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을 통하여 삶을 구현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경험의 원리: 영성생활의 자발성

웨슬리는 기독교 영성생활의 키 워드(key words)를 “체험”(experience)에서 발견하였다. 감리교 신학의 규범은 ‘네 가지 사과의 축’(quadrilateral)으로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영국 성공회의 ‘성서, 전통, 이성’이라는 세 가지 신학 규범에 ‘체험’을 추가한 것이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자신의 종교적 경험(올더스게이트의 회심 체험)을 통하여 발견한 사실은 성서, 전통과 이성의 신학적 규범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며, 사회를 개혁하는 역동적인 영성생활의 모티프(motif)는 바로 종교적 체험에 근거한다는 사실이었다.

종교교육에는 지식 전달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경험으로 검증될 때 변화를 가능케 한다. 경험으로 검증된 참된 지식은 역사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⁵³⁾ 그러므로 영성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혹은 성서적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험의 원리는 인간의 삶에 창조적인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종교적 진리에 대한 실재적 경험은 종교적 진리와 고결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을 가져오게 한다.

51) Iris V. Cully, *Imparting the Wor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p. 14; idem, *The Bible in Christian Education*, 김도일 역, 『성경과 기독교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3쪽.

52) Thomas á Kempis, *The Imitation of Christ*,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0), p. 10.

53) 장종철, 『기독교교육의 경험신학적 배경』 『신학과 세계』 봄호, 통권 제40호(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0), 261쪽.

3. 실천성의 원리: 영성생활의 사회성

웨슬리는 기독교 영성생활의 뿌리를 텍스트인 성서에 두었다면, 그 열매는 성서의 교훈에 따라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기독교 영성생활의 증거라고 보았다. 그의 신학은 신자의 마음과 삶을 형성하고(formation of christian heart and life) 죽은 교회를 생동하게 하고, 예배와 전도와 봉사에 생동력을 주고, 민족을 개혁하고 구원하는 실제적인 도구다. 그래서 웨슬리의 영성생활과 신학은 자신의 직접적인 현실이며, 신도들의 경건 훈련과 교회부흥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효과적이며, 다양한 은총의 수단을 생산해 냈던 것이다.⁵⁴⁾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그의 영성생활과 신학은 실천적이었으며, 생활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다.

사실 기독교 영성생활의 실천성은 성서가 보여주는 예수의 삶이 그 전형이다. 예수의 독특성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선포와 그 실현을 위한 실천성에 있었다.⁵⁵⁾ 이러한 예수의 실천성은 웨슬리 영성의 실천성에 계승되어 있다. 웨슬리가 추구했던 개인 성화(individual sanctification)와 사회 성화(social sanctification)의 실천성은 오늘날 종교 교육에 있어서 개인의 변화와 함께 사회 개혁과 변혁을 위한 실천적 영성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4. 통전성의 원리: 영성의 균형

웨슬리가 영성 계발을 위하여 제시한 다섯 가지 ‘제정된 은총 수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과 육, 개인과 공동체, 거룩함과 세속성 사이의 대극성을 상호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기독교교육학자 해리스(Maria Harris)와 모란(Gabriel Moran)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현대 영성훈련의 강조점을 세 가지로 말한 바 있다⁵⁶⁾: 첫째, 개인의 내면 훈련(individual interiority), 둘째, 공동체 훈련(group ritual), 셋째, 개인과 공동체의 두 가지를 통합하는 훈련(integrating discipline)이다. 전통적인 영성교육에 대한 비판은 성(聖)과 속(俗)에 대한 이원론적 태도, 교사의 학습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일방성, 개인의 내면적인 훈련의 강조로 나타나는 비역사적인 삶의 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한 영성훈련의 통합성은 영과 육, 과거와 현재, 미술과 연극, 개인과 공동체(group), 여성과 남성, 가족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고, 화해케 하고, 통합하는 차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제정된 은총의 수단’이 보여주는 통전성(integration of

54) 김진두, 『웨슬리의 실천신학』, 82쪽.

55) 장왕식, 『예수와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일고찰』 『신학과 세계』 봄호, 통권 제40호(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0), 337쪽.

56) Maria Harris and Gabriel Moran, *Reshaping Religious Education: conversation on Contemporary Practi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pp.117-119.

spirituality)은 전통적인 영성 훈련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성계발의 요소가 잘 암시되어 있다.

5. 공동체성의 원리: 영성발달과 성장의 장

웨슬리는 기독교 영성생활의 성격을 개인적 차원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영적 연대의식을 조장하는 공동체성으로 파악하였다. 비록 영성생활의 기본적 출발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영성 발달(spiritual development)은 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연합신도회, 조, 속회, 크리스찬 컨퍼런스와 같은 신앙공동체를 통하여, 신앙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 완성해 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영성계발에 있어서 공동체의 장점은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spiritual interaction)과 영적 연대감(accountability)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특히, 영성 발달과 관련하여 신앙공동체의 의미를 두 가지 면에서 부각시켰다. 첫째, 신앙공동체는 과거의 전통과 현재가 만남을 통하여, 미래의 창조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문화화’(enculturation)가 이루어지는 영성계발의 현장(locus)라는 것이다. 둘째, 신앙공동체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신앙은 형성(formation)되며, 구체화(shaping)되고, 발전(development)되는 영성발달의 역동적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하였다.⁵⁷⁾

6. 다양성의 원리: 영성계발 방법론

웨슬리는 초기 메소디스트들의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위하여 ‘은총의 수단’을 제도적 차원에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개신교적 전통에서 볼 때, 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례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정된 은총의 수단’의 차원과 범위를 다양하게 넓혔다는 점이다.

웨슬리 영성생활의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는 성서적 교훈을 따라 ‘온전한 구원’(벧후1:9)을 이루기 원하였으며, 실제적으로 개인의 내면적 성화와 함께 실천적 삶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영성생활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한 영성생활의 이상을 실재화하기 위하여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영성훈련의 신학적 동인들(motive)을 다양하게 변형, 확대하여 활용하였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성례전(sacrament)은 가톨릭과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생애의 특별한

57) John H. Westerhof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2), 93-96쪽; 137-149쪽.

순간에 적용되는 성례전의 수단을 일곱 가지(seven sacraments)로 행하여 왔다. 곧 제정된 성사(ordained seven sacraments)는 성세(baptism), 견진(confirmation), 성체(eucharist), 고백(penance: confession, reconciliation), 혼인(matrimony), 신품(holy order), 병자 성사(the anointing of the sick) 등이다.⁵⁸⁾ 반면에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세례(baptism)와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 Eucharist), 이 두 가지만을 제정된 성사(ordained two sacraments)로 받아들였다. 웨슬리 또한 이 두 가지 성사만을 인정함으로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영성계발을 위하여 '은총을 받는 수단'(means of grace)이라는 재개념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메소디스트들의 영성계발을 촉진하였다.

V. 결론: 웨슬리 영성수련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웨슬리의 영성과 그 수련 방법으로 제시된 5가지 '제정된 은총의 수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통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영성생활의 근거로서 텍스트의 권위와 가치의 확립이다. 기독교영성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이자 근거는 성서이며, 그 권위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기독교교육의 영성 계발에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이며, 영원한 진리로서 기독교적 가치를 함의한다.

둘째,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경험의 중요성이다. 종교적 경험은 종교적 진리와 가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을 통하여 진정한 영성생활을 가능케 한다. 종교적 진리와 가치에 대한 '경험적 확신'(experiential conviction)은 자신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창조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종교적 체험이 없는 영성생활은 생동감이 없는 관념적인 주지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영성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공공성(publicity of spirituality)의 확보이다. 종교나, 신앙인도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이기에 사회적 책임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서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근본주의적 태도나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종교는 사회를 동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다.⁵⁹⁾ 그러므로 종교는

58) E.J. Yarnold, "Sacramental Theology," ed. by Alan Richardson and John Boeden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p.516.

59) 종교의 자유와 공공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Johannes A. van der Ven, 『종교의 자유와 공적 교회』ed. by Richard Osmer and Friedrich L. Schweitzer, *Developing a Public Faith: N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회 포럼 역 『공적신앙과 실천신학』(서울: 대한기독교

자신의 보편적 가치와 개방성의 영성교육을 통하여 사회문화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회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성이 무엇이나?”(What is spiritualit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종교교육의 영성계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적 진리와 가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영성교육의 교사와 학습자는 종교적 진리가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켰으며, 사회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진리라는 경험적 확신, 즉 검증된 ‘종교적 체험’(religious experience)이 요구된다. 올바른 지식에 대한 경험은 인간의 삶 과 사회문화 변혁의 창조적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영성교육의 공공성(publicity of spiritual education)은 종교적 진리를 통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사회문화를 창조적으로 변혁하는 중재자(medium)의 역할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참고문헌

- 권희순, 『웨슬리 영성수련 프로그램』, 서울: kmc, 2006.
- 김영래, 「상상력과 기독교교육」 『신학과 세계』, 가을호, 통권 제41호(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0).
- 김정준, 『융 심리학과 영성교육』, 서울: 이머징북스, 2008.
- 김진두,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06.
- _____, 『웨슬리의 실천신학』, 서울: kmc, 2006.
- 김홍기,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_____, 『존 웨슬리의 성화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8.
-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7.
-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오성준, 『영성과 묵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 이후정, 『성화의 길: 오늘을 위한 웨슬리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임영택, 「영성의 모형과 지도력」 『기독교교육정보』, 제13집(군포: 한국기독교 교육 정보학회, 2006).
- 장왕식, 「예수와 기독교의 독특성에 대한 일고찰」 『신학과 세계』, 봄호, 통권 제40호(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0).
- 장종철, 「기독교교육의 경험신학적 배경」 『신학과 세계』, 봄호, 통권 제40호(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0).
- 한정애, 「웨슬리의 시대적 배경 및 그의 신학사상의 위치」, 협성신학연구소 편, 『협성 신학연구소 논총2: 웨슬리 신학과 오늘의 교회』(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보 출판국, 1997).
- á Kempis, Thomas. *The Imitation of Christ*.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0.
- Body, Alfred H. *John Wesley and Education*, 장종철·주신자 역, 『존 웨슬리와 교육』,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교육국, 1995.
- Cell, G. C. *The Rediscovery of John Wesley*, 송홍국 역, 『웨슬레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 Cully, Iris V. *Imparting the Wor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2.
- _____, *The Bible in Christian Education*, 김도일 역, 『성경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Davies, J. G. (ed.) *The New Westminster Dictionary of Liturgy and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 Dupré, Louis and Sailors, Don E. *Christian Spirituality: Post Reformation and Modern*, 엄성욱·지인성 공역, 『기독교 영성(III): 종교개혁 이후부터 현대까지』, 서울: 은성, 2001.
- Edward, H. Sugden. (ed.) *The Standard Sermons on John Wesley*. Vol. I., London: Epworth Press, 1921.

- Halevy, Elie. *England in 1815: The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in the Nineteenth Century*, trans by E.I. Watkin and A. Barker (1912) in <http://en.wikipedia.org> 2008. 10. 12.
- Hanson, Bradley C, (ed.) *Modern Christian Spirituality*, Atlanta: Scholars Press, 1990.
- Harper, Steve, *Devotional Life in the Wesleyan Tradition*, Nashville: The Upper Room, 1983.
- Harris, Maria and Moran, Gabriel. *Reshaping Religious Education: Conversation on Contemporary Practic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Jones, Cheslyn, Waynwright, Geoffrey, Yarnold, Edward, SJ.(eds.) *The Study of Spirituali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King III, Henry Knight,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 John Wesley and Means of Grace*, Lanham, Md: Scarecrow Press, 1992.
- McGrath, Alister, *Roots that Refresh: A Celebration of Reformation Theology*, 박규태 역, 『종교개혁시대의 영성』, 서울: 좋은씨앗, 2006.
- _____,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영성 베이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Osmer, Richard, and Schweitzer, Friedrich L.(ed.) *Developing a Public Faith: N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회 포럼 역,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Wakefield, Gordon S, *Methodist Spirituality*, Peterbrough: Epworth Press, 1999.
- Wesley, John, 마경일 · 송홍국 공역, 『존 웨슬리 총서1: 표준설교집(상)』,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박봉배 · 조종남 공역, 『존 웨슬리 총서2: 표준설교집(하)』,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송홍국 · 이계준 · 김광식 공역, 『존 웨슬리 총서9: 논문집』,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김영운 역, 『존 웨슬리 총서10: 서한집』, 서울: 유니온출판사, 1983.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Albert C. Outler.(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Thomas Jackson, (ed.)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6.
- _____. *The Works of John Wesley*, VOL. IV. Alber C. Outler(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_____. *The Journal of John Wesley*, Parker, Percy Livingstone(ed.) Chicago: Moody Press, 1974.
- Westerhoff III,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 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2002.
- Yarnold, E.J. "Sacramental Theology,"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Christian Theology*. Alan Richardson and John Boeden, (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원고접수: 2008년 11월 24일 1차심사: 11월 30일 게재승인일: 12월 2일

연구자 소개: 김정준

- ① 전공: 신학, 기독교교육학 / 소속: 서울기독교대학교 기독교교육학 강사
 - ② 관심영역: 신학, 기독교교육학, 영성신학, 종교와 심리
 - ③ 주요논저: 『육 심리학과 영성교육』(서울: 이머징북스, 2008), 「한국인의 무교문화적 성격과 영성교육」 『문화와 신학』 Vol. 02, (한국문화신학회, 2008), 179-207쪽.
 - ④ E-mail: kimjeongjoon@naver.com
-

Abstract

John Wesley's Spiritual Exercise Related with the 5 Means Ordained of Grace and Modern Implications for Spiritual Education in Religion

Kim, Jeongjo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The presented paper explores modern implications of spiritual education related with John Wesley's manners of spiritual exercise, 5 means ordained of grace. John Wesley (1703-1791), a well-known founder of methodist church in England, had pursued 'christian perfection' that includes a spiritual discipline for 'imitation of christ', developing a man's character like Jesus christ. For carrying out of it, John Wesley suggested a kind of spiritual discipline manners, 5 means ordained of grace, such as prayer, searching the scriptures, receiving the Lord's supper, fasting, christian conference. It contains som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principles of spiritual formation, as follows: (1) principle of the scripture: basis of spirituality, (2) principle of experience: voluntary of spiritual life, (3) principle of practice: sociality of spirituality, (4) principle of integration: balance of spirituality, (5) principle of community: context of spiritual growth, (6) principle of diversity: methodology of spiritual development. Wesley's 5 means ordained of grace give some insights to religious education for spiritual formation in religious situations of korea: First, it needs to establish authority of the canon(like scripture) as a text and sources of spiritual life. Second, Importance of religious experience in the individual. Religious experience can give a experiential conviction to the individual on the truth of religion, which also can change his personality and our world under the light of experienced truth of religion. It can evoke a dynamic motivation that transformation of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Third, Religion is more needed mortgage of publicity in spiritual education to communicate with socio-cultural worlds and to change it desirably. Insights of Wesley's 5 means ordained of grace give some implications for spiritual education to be a medium, which can change personal character and socio-cultural world with integration under the light of truth in religion.

Key words : John Wesley's means ordained of grace, instituted means of grace, authority of the Scripture, religious experience, social publicity of spiritual education